



맛있는 빵의 대명사 '리치몬드' 은마점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신선한 빵 공급



▲ 쇼케이스 뒤로 공장이 있어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 작은 매장이지만 다양한 품목을 선보여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 8월 24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내에 '리치몬드' 은마점(대표 : 나기학)이 오픈했다. 이 점포는 기존의 리치몬드과자점 이미지를 강남권인 대치동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규모는 14평으로 그 중 공장의 면적은 8평이지만 주간팀과 야간팀이 번갈아 생산을 담당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빵이 30여종, 쿠키 15종, 반생과자 10종, 양과자 26가지, 케이크 15여종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매장 규모는 작지만 '리치몬드과자점' 본점과 같이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으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위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 고객의 소비 수준이 높은 이곳은 양과자의 판매가 많은 편이다 또한 천연 과일을 원료로한 자몽 젤리, 메론 천연 젤리, 가또 후람보아즈, 까뜨리 세종 등도 판매되고 있다. 특히 생크림과 초콜릿을 녹여 만든 가나수 케이크와 카카오메스를 원료로 만든 쇼코라 아메르는 초콜릿의 진한 맛이 일품이다. 이밖에 쿠키 길펠, 뼈동 빠리송, 셀, 큐벨, 휘안세, 씨트롱, 풍포넌트 마롱, 까망베르, 다쿠와즈, 가렛또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리치몬드' 은마점은 앞으로 생산 품목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질 좋은 서비스로 본점의 이미지를 강남지역에 확고히 심는다는 방침이다. [이]

〈글 / 정한상〉